

뉴스홈 | 최신기사

제주 전기차 폐배터리 저장시설 포화...활용 방안 찾는다

송고시간 | 2022-02-24 11:40

고성식 기자
기자 페이지

| 제주도, 공공 활용-민간 매각 기준 의견 수렴

(제주=연합뉴스) 고성식 기자 = 제주지역 전기차가 연내 3만 대 시대를 목표하는 가운데 사용 후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

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
[연합뉴스 자료 사진]

제주도는 '제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 활용 및 매각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'를 내 제주에 보관 중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 활용 또는 민간 매각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.

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제주테크노파크(JTP)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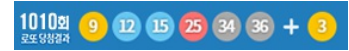


제주에 전기차가 연내 3만 대를 바라보고 있지만, 사용 후 배터리를 모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보관해 현재 저장 공간 250대를 대부분 채우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다.

도는 현재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 가운데 잔존 수명(SOH) 60% 이상의 118팩(pack) 등을 공공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배터리 팩은 배터리에서 분리한 장치로, 그 안에 모듈과 셀로 구성되어 있다.

도는 반기에 한 차례씩 공공 활용 부서 등에 모듈 단위나 팩 단위



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
무 많은 민주주의"

한국 유튜브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
다 귀환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
등 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
범이 밝힌 '그날'...

'음주측정 거부-경찰관 폭행' 래퍼 장용준 1심 실...

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' 소개팅앱 내부고발...권익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불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



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길 예정이다.

도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방안으로 ▲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 뉴딜 ▲ 1차산업 및 관광산업 연계형 공공 실증 ▲ 공공자원 연계형 실증 ▲ 공공 충전기 연계형 에너지 관리 모델 ▲ 연구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.

도는 매각 방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고 낙찰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.

도는 아이오닉(용량 28kWh)의 경우 10년간 운영하고 배터리 잔존 수명이 60%일 경우 가격이 대략 1팩에 20만4천753원 정도로 추정한다.

모듈 단위로는 SM3(용량 1.1kWh)의 경우 10년간 운영하고 배터리 잔존 수명 60%이면 8천117원으로 추산된다.

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 활용 및 매각 방법과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우편(제주도 저탄소정책과)이나 팩스(064-710-2652) 전자우편(dony72@korea.kr)으로 받고 있다.

koss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2/24 11:40 송고

#전기차 #배터리 #매각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...누가 확대했니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-수송헬기-정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모임·영업·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...마스크는 '유자'

검수완박에 청문정국 '한동훈 블랙홀'까지...여야 끝장대치 예고

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...'검수완박 대응' 논의

기준금리 1.25→1.50% 또 인상...4%대 인플레 '불 끄기'

댓글 많은 뉴스

- 1 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
126
- 2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
59
- 3 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50
- 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할 등재개 예열?
40
- 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"
34

뭐하고 놀까? #홍→

뉴스홈	최신기사	정치	북한	경제	산업	사회	전국	세계	문화	라이프	연예	스포츠	오피니언	사람들					
비주얼뉴스	영상	포토	화보	#D	그래픽							뉴스 상품	프리미엄뉴스	뉴스리더	인타넷맞춤형	보도자료	해외배포	보도자료	국내배포
테마별뉴스	핫뉴스	톱뉴스	주요뉴스	긴급뉴스	단독뉴스	많이본뉴스						출판물	이매진	연합연감	영문연감	한국인물사전	단행본	월간 미디어스	
뉴스+	이슈돋보기	팩트체크	재난포털	날씨	주요신문	톱뉴스/사설	이시각	헤드라인				광고	KTX 열차	APEX 공항철도	모바일	PC/홈페이지	출판물		
모바일 뉴스	모바일웹	모바일앱										콘텐츠 판매	보도사진	이미지	그래픽	동영상	인물		
외국어	English	中文	日本語	عربي	Español	Français						관련사이트	연합뉴스TV	인포맥스	한민족센터	K컬처기획단(K-ODYSSEY)	채용	IR 클럽	#홍

개인사/제휴문의